

# 모더니티를 탐사하는 근대적 이성의 로망스\*

— 채만식의 『염마(艶魔)』를 대상으로

김 은 하(중앙대)

## 〈목 차〉

1. 탐정소설 : 성숙한 남성의 취미이자 수양독본
2. 명량래활한 부르주아 청년의 우울증 정복기
3. 탐정이 연애하면 안 되는 이유
4. 모더니티의 공포와 이성의 영웅
5. 속류화된 교양의 징후

## 1. 탐정소설 : 성숙한 남성의 취미이자 수양독본(修養讀本)

탐정소설은 흔히 대중적 취미활동의 품목 중 하나로 간주된다. 본격적인 탐정소설 작가 김내성은 “비범한 것에 대한 동경이고 기이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충동예의 갈망”<sup>1)</sup>, 즉 자극과 만족의 연동이 탐정소설이 독자에게 주는 쾌락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탐정소설을 진지함과 미적 자율성이 결여된 ‘통속’, 즉 하위계급의 기능성 독서의 목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최초로 서양의 탐정소설이 수입·유통된 식민지기에서도 탐정소설에 대한 문단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AS0105).

1) 김내성, 「탐정소설의 본질적 요건-『사상의 장미』의 서문」, 『한국근대대중소설 비평론』(조정면 편저), 태학사, 1997, 149면.

의 반응은 차가웠던 듯 보인다. 백철은 1930년대 초반의 문학계를 진단하는 자리에서 “신성한 문학이 금일에 이서는 그들의 초기시대의 예술적 생명과 정열을 잃고 완전히 사회적 진보성과 乖離되어 있는 이때에 그들의 문학의 극단화와 변모로서 통속문학이라는 최후적 기형적 문학형식을 취하게 된 것”<sup>2)</sup>이라고 개탄하며, 그러한 타락의 한 경향으로 “탐정취미성”을 든다. 그러나 탐정소설은 1910년대부터 수입 번역되기 시작한 이래 조선에 사립탐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시장을 강타하는 흥행의 보증수표이자 뉴 웨이브한 매혹이었다. 30년대부터 지식인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수용과 창작의 활성화를 골자로 한 탐정소설론이 제출되고 작가들의 창작활동이 이루어질만큼 본격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성면의 조사에 따르면 “김내성이 등장하기 이전, 이미 28편의 탐정소설이 번역·소개되고 있었고, 평론도 13편이나 발표되고 있었으며,<sup>3)</sup> 국내작가에 의한 순수한 창작물도 14편을 헤아릴 정도로<sup>4)</sup> 탐정소설은 지식사회와 독서계의 문화현상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sup>5)</sup> 이는 탐정소설이 본격적인 문학논의로까지 발전하기 못했는지 언정 식민지 문단과 문화사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sup>6)</sup>

이렇듯 1930년대에 탐정소설의 독서와 창작이 활성화된 이유로 이념의 퇴조와 문단의 재편에 따른 본격적인 대중소설 시대의 개막, 신문사 간 경쟁체

- 
- 2) 백철, 「1933년도 조선문단의 전망」, 『동광』, 1933, 71-72면. 오혜진의『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중앙대박사학위논문, 2008)에서 재인용.
  - 3) 천정환의 「계몽주의 문학과 '재미'의 근대화」(『역사비평』, 66호, 2004)에 따르면, “코난 도일 같은 영국의 대표적 추리작가는 1910년대 후반 『태서문예신보』 단계에서 이미 소개되었고, 그의 『붉은 실』은 1921년 『동아일보』에 번역 연재되어 인기를 끌었다. 또한 에드가 알란 포의 『도둑 맞은 편지』, 나『황금총』, 르블랑의 『괴도루팡』 등도 1920년대부터 활발하게 소개되거나 읽혔고, 1930년대 중반에는 한국작가들에 의해 추리소설이 본격적으로 창작”(353-354면)되는데, 탐정소설은 구소설의 기괴한 이야기가 근대적인 재미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당대사회가 1920년대부터 에로·그로 열풍에 휩싸였다는 것, 동아시아 질서가 변화하고 명분론에 근거한 유교적 세계관의 설득력이 파탄이 났는데, 이미 조선인들을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세계가 합리성과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철저히 지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등이 추리소설 장르가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 4) 식민지기 번역, 변안, 순수창작물, 비평의 전체 목록은 김창식의 글에 소개되어 있다. 김창식, 『추리 소설 형성기의 실상과 김내성의 『마인(魔人)』』,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대중문학연구회편), 국학자료원, 1997.
  - 5) 조성면,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29면.
  - 6) 오혜진은 『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에서 탐정소설 형성배경의 문학내외적 요소와, 탐정서사가 담론, 문학, 미디어 등 여러 방면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밝힌다.

제와 그로 인한 신문연재소설의 상업화 풍조, 『별건곤』 등 취미 잡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예로, 그로, 닌센스 등 대중의 하위문화적 감각의 등장을 들 수 있다. 3·1운동과 함께 시작된 1020년대가 민족주의적 색채 혹은 항일적 성격이 강했다면, 30년대는 항일문예운동의 중심점인 카프가 해체되는 한편으로 제국주의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일본군국주의 문화가 팽창해 과시즘적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제국에 대한 동화의식이 퍼지는 등 비판의식이 무뎌져 본격문학의 순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또한 탐정소설은 1920년대 중반이후 독서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독서가 일상적이며 근대적인 오락으로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대표적인 대중장르로 떠올랐다. 천정환에 따르면 근대화가 진척됨에 따라 독서시장도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한편에서는 책이 그야말로 노동 외의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노동의 곤궁함을 잊기 위한 볼거리가 되면서 감각적 자극을 위한 통속적 읽을거리가 대량생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목적적인 예술적 향유의 대상과 그에 대한 취미판단으로서의 ‘책 읽기’가 나타난다.<sup>8)</sup>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탐정소설은 지식교양층의 순수한 취미판단으로서의 책읽기보다 하위계급들 사이에서 여가와 휴식을 위한 기능적 독서의 범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탐정소설은 사회적 갈등이 상상적으로 해소되는 오락용 독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정소설의 주된 향유자인 학생층은 대중소설의 독자인 동시에 준 지식인으로서 고급한 취향을 소지할 가능성의 담지자<sup>9)</sup>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식민지 문단에서 탐정소설의 위상이 상당했으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렇듯 탐정소설이 중간층이나 잠재적 엘리트 계층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까닭은 무엇일까? 탐정소설 창작 활성화를 식민지 문단의 위상과 관련시킨 논의들은 당대 탐정소설이 인기를 얻는 원인을 엿보게 한다. 이종명은 “현대는 탐정소설의 시대이다”라고 전제한 후 탐정소설의 본질을 규명하는 가운데, 첫째 탐정문예의 취재된 내용이 불가능한 공상이 아닌 “과학적으로

7) 오혜진, 앞의 논문, 20-32면.

8)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 역사, 2003, 194면.

9) 천정환에 따르면 “고급문화의 잠재적인 향유자”이자 “도시문화의 ‘대중’인 양면성을 갖는” 학생층의 소설 수용코드는 연애, 모험, 괴기, 활극, 삼각·사각의 갈등, 공포, 해석키 어려운 수수께끼 등으로 연애소설과 모험, 탐정소설이 주를 이루었다. 앞의 책, 361면.

보아 전달될 수 있는 공상”이며 둘째, 탐정소설이란 그 내용이 사건적인 동시에 그것을 추리·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든 논리적·심리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탐정소설을 ‘현대’ 즉, 과학적 추리에 근거하고 있는 근대성의 대표적 장르로 주목한다.<sup>10)</sup> 김영석은 “××[혁명]시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공상이라는 것이 비약적으로 현실에 합치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가능성이 존재한 공간을 의미한다. 오인(吾人)은 좋은 의미로서 탐정문학의 채용을 환영하는 바이다.”<sup>11)</sup>라고 전제하고 탐정소설 창작의 필요성을 사회주의 사상을 담은 새로운 형식, 즉 문학대중화론의 상상력 속에서 제출한다. 송인정은 탐정소설이 인간사회의 ‘악’인 범죄를 방어하는 효과, 과학적 지식을 선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탐정소설의 가치 혹은 장점을 밝힌다. 더불어 탐정소설의 주 독자층이 모던 남녀이고, 탐정소설 읽기가 현대적 유행풍조라는 점<sup>12)</sup> 등을 들어 탐정소설을 근대 도시 대중의 첨단 취향으로 꼽는다. 이들의 글은 공통적으로 탐정소설의 자질을 과학, 이성으로 규정하고 탐정소설 창작의 필요성을 근대성(현대성)의 획득과 결부지어 논의한다.

식민지 탐정 소설의 인기는 당대의 ‘과학’에 대한 지식집단의 열광적 기대와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 탐정소설에서 탐정은 수수께끼같은 사건을 보통 사람보다도 뛰어난 분석력과 추리력 그리고 과학적 도구들에 힘입어 풀어가기 때문이다. 탐정은 중세에서라면 마법사가 하던 일을 맡아하는데 그를 초월적 영웅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은 과학 및 이성이다. 정중현은 한국문학사에서 1930년대는 일본 파시즘의 팽창으로 인한 강압적 정치, 카프의 해산으로 인한 이념의 퇴조, 중일전쟁 이후 세계사적 전환 속에서 20년대 이해 식민지 지식인들이 세계와의 동시대성, 현대성을 공유감각하는 준거였던 ‘보편’지식으로 서의 사회주의가 한낱 조롱거리고 전락했으며, “사회주의라는 ‘죽은 신’을 대체할 새로운 숨은 신’, 즉 새로운 “보편의 표상”<sup>13)</sup>으로 ‘과학’이 등장한 시대였음을 주목한다. 이는 30년대 문단에서 과학이 식민지의 무능한 주체위치를 벗

10) 이종명, 「탐정소설론」, 『중외일보』, 1928.6.5-9.

11) 김영석, 「포오와 탐정문학」, 『연회』, 8호, 1931.12.

12) 송인정, 「탐정소설 소고」, 『신동아』, 1933.4.

13) 정중현, 「사실, 과학 그리고 문학의 신생」,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8.6, 51면.

어나 근대적 합리성과 로고스를 바탕으로 근대적 주체성 획득이라는 미완의 기획에 도달하기 위한 것, 즉 교양화와 정체성 획득을 위한 보편 표상<sup>14)</sup>이었으리라는 추정하게 만든다. 안희남의 「탐정소설론」은 30년대 탐정소설이 지식인의 수양독본의 일종이었다고 밝힘으로써 탐정소설이 식민지 지식인들의 근대적 교양형성의 매개였음을 암시한다.

가) “탐정소설을 여기에 견주어 말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노릇이나 적어도 나의 경험으로는 흥미를 갖고 재미를 붙이는 점으로서는 순문학에 비하여 현금 율등한 형세에 있다. 『좁은 문』한 권을 두고두고 이따금씩 펴보는 사이에 나는 탐정소설을 심수권이나 독파하였다. 전자가 보다 감정적 소산인데 대하여 후자는 보다 이지적 소산이요 사람은 장성하여 갈수록 감정적의 유연한 것보다는 이지적인 강경(強硬)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까닭이 아닌가 한다. 탐정소설이 교수, 정치가, 과학자, 문인 등등 타종류의 통속소설을 읽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제일로 프로필의 특수성이 있는 때문이라고 반 다인도 그의 「탐정소설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안희남, 「탐정소설론」, 『조선일보』, 1937.7.13)

나) “탐정소설을 애독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이같은 탐정취미를 가졌다. 독일의 서얼록 홈지, 반 다인의 파이로 번스, 벤틀리의 트랜트, [리처드 오스틴] 프리맨의 손 다이크 박사 등 이러한 일류 명탐정에게까지 자기 자신을 비약시켜 그러한 인격을 대담, 건강, 박학, 현명, 재기를 소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폴 포란은 “인간의 모든 감동 중에서 공포는 연애와 함께 가장 강렬한 것이다. 그러나 풍부한 작품으로는 공포는 연애를 능가한다”라고 말하여 공포 관념의 만족으로서 탐정소설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려 하였으나 물론 이것은 그 일부를 알아낸 것에 불과한 것이요, 탐정소설은 위에서 온 것과 같이 진실로 가장 번뇌적인 현대인의 수양독본(修養讀本)이기도 한 것이다.”(안희남, 「탐정소설론」, 『조선일보』, 1937.7.15.)

14) 최애순은 본격적으로 탐정소설을 창작한 김내성의 데뷔를 중심으로 “(자연) 과학 붐이 일자 이전의 문학 혹은 예술로 대표되던 것들은 퇴색되었다. 과학지상주의의 유행과 함께 이성, 객관적(과학적) 증거 등을 내세우는 ‘탐정소설’이란 장르는 대중에게 먹힐 수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탐정소설의 유행이 과학으로 표상된 근대성에 대한 매혹에서 비롯됨을 암시한다. 최애순, 「이론과 창작의 조응, 탐정소설가 김내성의 갈등-분격 장면 탐정소설 『마인』이 형성되기 까지」, 『김내성 탄생 100주년 기념: 김내성 소설의 추리, 연애, 모험, 그리고 이상(理想)의 세계』, 대중서사학회 2009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9.4.11, 27면.

인용문 가)는 안희남이 탐정소설 매니아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탐정소설을 성숙한 어른의 장르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여기서의 성숙이란 단순히 생물학적 연령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적인 면모, 즉 지성과 교양을 의미한다. 그는 감성을 미성숙과 결부짓고 지성을 성숙의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앙드레 지드의『좁은 문』을 어린 시절에 읽었다더라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며 미성년=감성, 성년=이성·지성으로 이분화한다. 나아가 탐정소설의 독자를 교수, 정치가, 과학자, 문인 등 고학력의 엘리트 전문가 그룹으로 제시하고, 지성을 중상계급의 자질로 제시하는 등 탐정소설을 중산층엘리트 장르로 특권화해 여타의 통속소설 부류와 구분짓는다. 인용문 나)는 탐정소설을 읽는 엘리트지식인들의 궁극적인 욕망이 “일류 명탐정에까지 자기 자신을 비약시켜 그러한 인격을 대담, 건강, 박학, 현명, 재기를 소지하고 싶어하는 것”, 즉 인격적 성숙과 완성을 의미하는 자기의 교양화에 있음을 밝힌다. 탐정소설은 “가장 번뇌적인 현대인의 수양독본(修養讀本)”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지만 탐정소설 특유의 공포가 현대인의 번뇌적 삶과 그것의 해소 혹은 극복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탐정의 수사방법에서 엿보이는 “심오한 심리학의 지식” “고대예술에 대한 경탄할 정열” 등 “탐정소설을 살펴보면 심리학, 법의학, 범죄학 등은 물론 철학, 과학, 사학, 천문학, 정치,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어느 정도의 수련이 있어야 한다”(p.162)는 서술은 탐정소설에 대한 매혹이 탐정의 폭넓고 깊은 교양에 대한 경탄에서 비롯됨을 암시한다. 이는 30년대 교양청년의 표상이 세계에 대한 박학다식한 지식과 과학적 이성에 근거한 합리주의임을 암시한다. 즉, 탐정소설이 우월한 것은 바로 폭넓은 삶의 욕구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세상에 대한 과학적 규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에 탐정소설이 없다는 것은 근대성에 미달하는 증거로서 수치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 탐정소설 논자들은 조선에 이렇다할만한 탐정소설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후진성의 증거로 제시한다.

본고는 채만식의 『염마(艷魔)』(조선일보, 1934.5.16.11.5)를 대상으로 탐정소설은 기실 저급한 대중의 무교양의 취향이 아니라, 과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주제 형성에 대한 열렬한 동경을 보여주는 것이며, 20년대를 풍미한 퇴폐적 개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통속화된 남성의 교양소설로 읽을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려 한다.<sup>15)</sup> 이를 위해 탐

정되기를 모더니티에 대한 매혹과 공포의 분열된 감정 속에서 남성주체성을 확립하는 속류화된 교양 과정으로 보려한다. 탐정되기의 과정은 이성적 근대성의 획득, 즉 감정을 극복하고 과학적 사유 능력을 지닌 지성적 인간으로 자기주체화하는 것이다. 이때 감정은 탐정의 자율성을 침입하는 위협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남성적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된다. 냉정, 비정함, 지성, 관찰과 실험, 추론과 종합, 해부와 분석은 남성화된 근대 과학의 증거이다. 탐정소설은 논리적 추리력을 갖고 닦아 섬세하게 조율된 자신의 정신세계 속으로 두려움이나 연약함 혹은 뜨거운 감정이 침투하는 것을 봉쇄함으로써 영웅, 즉 우월한 개인이 되는 비정한 여정을 담는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적 주체 기획의 서사에서 감성은 방해물로 간주된다. 이성적인 채로 남아있으려면,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여성이 배제되고 추방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감정의 젠더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감정인 까닭은 여성이 육체로 규정되어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2. 명랑 · 쾌활한 부르주아 청년의 우울증 정복기

채만식은 『염마(艷魔)』<sup>16)</sup>를 필명 서동산으로 발표했다. 이렇듯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행위는 탐정소설 창작이 자랑할만한 일은 아니라는, 즉 본격문학 작가의 자의식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채만식이 본격문학은 우월하고 통속문학은 열등하다는 식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의 인용문은 채만식이 탐정소설을 재미를 위한 진지함이 결여된 통속문학, 즉 일종의 취미 혹은 놀이로 받아들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인물의 시선을 빌어 탐정소설을 경멸하는 조선 문단의 예술가 부류를 냉소하고 있어 주목된다. 본

15) 『염마(艷魔)』는 그간 김내성의 『마인(魔人)』(조선일보, 1939.2.14-10.11)과 비교되어 주로 어느 게 탐정소설로서의 완성도가 높인가에만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오면서 『마인(魔人)』의 그늘에 가려져 왔다. 본고는 장르적 완성도보다 두 작품 모두 “탐정에게 연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불문율과 유정한 인간이 육망에 갈등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아름다운 여성이 연쇄 살인 범죄에 개입되어 있고 탐정이 이들에게 매혹된다는 점, 모더니티에 대한 공포와 매혹의 양가감정을 보여준다는 것 등 유사점이 두드러지기에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염마(艷魔)』는 김창식이 『마인(魔人)』과 관련해 간단히 언급한 것을 포함해 김영민(『채만식의 새 작품 <艷魔>론, 『현대문학』, 6월호, 1987), 오혜진, 최애순에 의해 연구되었다.

16)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艷魔)』(채만식전집 1), 창작사, 1987.

격문학의 무기력, 퇴폐적인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예술가와 예술지상주의 풍조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차가우며 혐오마저 담겨 있다.

“두 사람은 응접실에서 마주 대하고 앉았다.

허철이는 머리를 1920년식으로 길게 기른 것이 우선 눈에 띈다.

얼굴은 불이 훌쩍한 게 창백하고 표정이 우울하다. 그중 눈만은 재기가 있어 보인다.

입은 양복은 친은 좋으나 함부로 끌어 꼬기작거리고 술 흘린 자국이 지저분하게 묻었다.

그 나약한 품 우울한 품이 기운차고 명랑한 영호와 좋은 대조가 된다.

“그래? 요새 재미는 어떤가? 금년에는 걸작을 하나 내놓아야하지?”

영호는 쾌활하게 묻는다.

“걸작이고 무엇이고 문단이 하도 아니껴워서 원!”

허철은 힘없이 대답을 한다.

“여보게 자네, 그 독자도 없고 한 소위 예술소설 집어치우고 내가 재료를 제공할테니 탐정소설이나 쓰게 응? 나는 샬록 홈즈……자네는 와트슨? 어때? 허허허허.”

“그까짓 탐정소설을 쓰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고 말겠네.”

“왜?”

“그따우 탐정소설이니 대중문예니 또 소위 계급문제니 하는 것들은 문예 측에도 못 끼우는 것이야…… 다 날탕패나 문단에서 낙오된 찌스레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거나마 가지리쓰꾸하지.”

허철은 이야기하면서 흥분이 되었는지 창백한 얼굴에 조금 혈기가 돈다.

“글쎄……나는 예술이라는 그런 델리케트한 손잡신에는 문외한이니까 몰르겠네만 어쨌으나 나는 탐정소설이 제일 재미가 있네.”(451-452면)

허철은 “명랑한 때라고는 어느 정도까지 낭비할 수 있는 돈의 힘으로 유흥을 할 때”(450면) 뿐이고 늘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의 예술가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20년대식으로 길게 기른 머리”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가 아닌 과거에 살고 있는 젊은이라는 것이다. 허철은 번민과 비애의 감정에 휩싸였던 20년대 문단의 한 경향, 더 나아가 퇴행적이고 무기력한 조선의 예술을 표상한다. 영호의 일본 유학시절의 친구이기도 허철은 일년만에 조선에 돌

아와 문단에 참례하면서 “쇼펜하우엘의 영향을 잘못 받아”(450면) 늘 우울한 사람이 되었다는 서술이 이러한 판단을 암시한다. 반면 영호는 퇴폐와 낙후의 표상인 영호의 반대편에 위치한 이상적인 청년이다. 그는 천석이나 되는 유산의 소유자이자, 독신자이고 양친을 다 잃은 탓에 번잡하게 마음을 가정사도 없으며 체격 좋은 호남형의 성인남자이다. 영호가 이상적인 청년인 것은 서양식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을정도의 유산자 계급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퇴폐와 담을 쌓은 건강하고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도장에서 철봉과 권투를 한 뒤 목욕을 하고 산보를 하는데, 그 시간이 매우 정확하리만큼 짜여진 일과표 속에서 수신에 힘쓰기 때문에 심신이 늘 명랑·쾌활하며 인사불성으로 취하는 법이 없다. 영호는 이십년대 퇴폐주의 문학에 대한 결별이자 대안으로 등장한 명랑·쾌활한 청년으로서 당대 조선에서 보다 『프랭클린 자서전』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즉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 충실해 바람직하고 신망이 두터운 아메리카의 젊은이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두운 그늘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명랑·쾌활함의 이면에 자리한, 열정을 다할 가치나 이상이 없는 식민지 지식인의 무력한 처지에서 비롯된 우울의 얼룩이 은폐되어 있다.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 집에서 과학서적을 보며 실험에 열중하고, 탐정취미로 소일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처지가 영호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유리된 실험실 속에서 성장, 즉 근대적 주체되기의 가능성이 차단된 식민지 젊은이의 우울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혹은 절망적인 식민지 현실과의 대면을 회피하고 안락한 실험실 속에서 도피해있던 식민지 지식인의 면모를 읽어낼 수도 있다. 영호는 스물여덟이나 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욕망의 대상을 찾지 못한 채 탐정 취미로 소일하는 나르시시즘적인 부잣집 젊은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엄마(艷魔)』는 진정한 경험이 부재한 부잣집 도련님이 우연하게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안락하고 안전한 집 밖으로 나와 세상을 탐사하는 한편으로 어른으로서의 성숙을 도모하는 성장담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숙의 여정은 여자에 의해 촉발되고 배우자를 얻으며 끝맺기에 성별화된 것이다.

나르시시적인 삶의 안전성 혹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일상이 여자의 출현에 의해 깨뜨려짐으로써 영호는 집 밖을 나와 세상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그

는 늘 같은 시간 산보길에서 마주치던 “가냘프고 청초하게 생긴 배젊은 여자”인 미지의 여인, 즉 이학희가 갑자기 사라지자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여자의 돌연한 실종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자각을 안겨줌으로써 명량한 감정에 그녀를 드리운다. 마침 영호의 집으로 운전기사인 오복이 여자 손님이 두고 내린, 잘린 손가락이 담긴 의문의 상자를 들고 오면서 그는 탐정활동에 나선다. 여자의 실종 후 “옛, 무어 일거리가 좀 생겼으면……그저 시뻘건 피가 흐르는 사건……콧 부딪쳐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큰 사건이라고 하나 생겼으면……옛, 괜히 쓸데없는 생각에 사람이 침울해져서!”(301면)라는 소망에 응답이라고 하듯이 의문의 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탐정취미가 우울한 심사를 달래는 혹은 우울이 안겨준 무력증을 극복하는 방법임을 암시한다. 탐정 행위는 격렬한 감정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비정함이자, 희생자를 향한 감정이입이라거나 사건에 대한 개인적 감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호는 우울의 원인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탐정노릇에 뛰어들 후 사건에 접근해갈수록 점점 더 격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오복이의 차에 상자를 두고 내린 미모의 여자가 바로 산보길의 그 여자로 추정되면서 잘린 손가락 사건을 객관적 거리를 두고 관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그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다. 탐정으로서 비밀을 파헤쳐 사건의 이면에 드리운 무시무시한 범죄의 비밀을 밝혀내는 한편으로 우울의 원인인 사라진 여자를 찾아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는 그를 난국에 빠뜨린다. 탐정으로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라진 여자는 센터멘탈이나 두려움 등 개인적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영호의 탐정활동은 이성과 감성의 대립 혹은 대결의 구도를 띄게 된다. 특히 감성은 영호의 탐정행위를 휘방하고 그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영호의 이야기는 감정에 휩쓸려 일을 그르친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궁극적으로 감정을 야기하는 원인물질을 제거하고 감정의 평정심을 되찾는 과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무료한 부르주아 젊은이가 자신의 근원적인 우울의 원인을 찾기보다 그러한 원

17) 최예순은 『염마』가 서구범죄소설의 잔인한 묘사나 전율을 포기하고 연에서사를 삼입하고 있으며, 탐정 역시 비정하거나 냉혹하지 않고 유정한(soft-boiled) 면모를 띄는데, 이렇듯 ‘범죄’와 ‘연애’를 동시에 배치하는 것은 30년대 신문연계소설의 일반적 경향이었다고 보고 있다. 최예순, 「한국적 탐정소설로서 <염마>의 가능성과 의의」, 『현대소설연구』37, 한국소설학회, 2008.1, 224-225면.

인을 억압하고 억누름으로써 평정심을 회복하는, 즉 감정의 억누름과 추방에 관한 이야기이다.

### 3. 탐정이 연애하면 안 되는 이유

『염마(艶魔)』는 의문의 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를 찾아야만 하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여자 찾기는 유정한 개인이 아니라 무정한 개인이 되는 반복훈련의 과정이다. 영호는 사람의 손가락 한 토막, 즉 “그로 백 %의 사실”(312면)을 접하고도 “마치 골동품 수집관이 무슨 진기한 고물이나 발견한 듯”(312면) 지문을 뜨고 석고로 모형을 뜨지만, 실종된 여자와 사건의 관련성을 알아차리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리만큼의 공포감에 휩싸인다. 그의 탐정 행위는 앞서도 말했듯이 감정과의 결투인데, 감정을 촉발함으로써 탐정활동을 방해하는 원인이 바로 여자이다. 이로 인해 탐정 활동은 그를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원인 요소인 여자를 조사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된다. 이 범인찾기의 여정은 여자의 흔적을 추적하면서 그 여자가 성녀인지 독부인지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실종된 여자가 독부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영호의 가슴 속에서는 “일이 이처럼 되어갈수록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 보겠다는 욕망이 한 층 타”(333면)오르기 때문이다. 아마추어 탐정인 영호의 여정은 사랑하는 여자가 독부인지도 모른다는 의문에 시달리는 한편으로 그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여정을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로맨스-로망스이다. 따라서 감정 극복의 여정은 여성 혹은 여성성에 대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영웅적 탐정 혹은 남성적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 사건이 불러일으키는 흥미 탓에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영호는 살인 사건과 여자의 실종에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직감하자 더욱더 깊은 우울 혹은 공포에 사로잡힌다.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이 연모하는 여성일지도 모른다는 의혹 때문이다. “내보살 외야차(內菩薩 外夜野叉), 겉은 그렇게 상냥하고 착하게 생겼으면서 속은 악독한 범죄를 하는 요부독부?”(318면)라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일부러 냉정하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며 “그 여자에게 연연한 정이 끌리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만 감정적으로 돌아감을 깨”(318면)달으며 서서히 감정의 평정을 회복하

고 살인사건의 진실에 다가간다. “ ‘연애와 탐정은 동시에 할 것이 못된다’ ”(335면)는 탄식과 “그 여자에게 대한 연연한 생각 그것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냉정하게 일을 했을 것”(336면)이라는 자책은 감정에 대한 공포를 보여준다. 특히 탐정에게 감정이 위험이자 금기인 것은 이학희가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자에 대한 연민과 범인들에 대한 분노로 평정심이 깨지고 그로 인해 눈 앞에 있던 범인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감정의 출현-실수-자책-이성의 재정비라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감정의 서사이다. 즉 영호의 탐정담은 감정과 결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이성적 주체로 자기를 정비하는 과정이 된다. 감정의 위험성은 영호의 탐정노릇을 돕는 보조자이자 그 자신이 탐정취미에 재미를 붙인 오복이가 질투심 때문에 무리하게 탐정 활동에 나섰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영호는 자기를 책망하며 눈물 흘린다. 자신의 감정을 못이겨 오복이를 자극한 탓에 오복이가 무리하게 범인을 추격하느라 사고가 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영호는 손가락 한토막을 발견한 후 의문의 살인사건이 두 차례 벌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점차로 살인 사건의 범인 서광옥의 정체를 뛰어난 추리력에 힘입어 파악하게 된다. 영호가 살인사건의 핵심에 다가가면서 스토리는 영호와 범인들의 두뇌싸움으로 전개되고, 이 악당의 우두머리가 ‘신식아씨’ 즉 ‘모던걸’ 서광옥임이 밝혀진다. 서광옥은 식민지 모더니티에 대한 작가의 불안을 암시한다. 신여성인 서광옥은 열아홉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학희의 아버지 이재석의 첩이 된 후, 일년만에 거금의 재산과 금고의 암호문서의 반조각을 빼앗아 애인이자 공모자인 유대설과 함께 상해로 달아난다. 상해로 건너간 서광옥은 과할 정도로 남성편력과 사치를 일삼으며 흠쳐낸 돈을 탕진한다. 결국 유대설은 서광옥을 배신하고 반쪽의 암호문서를 찾기위해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급기야 추격해오는 서광옥에게 붙들려 손가락이 잘리고 살해당한다. 이학희의 아버지 이재석 역시 자신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서광옥 일파와 대립하다가 죽고만다. 즉, 이 작품은 비극적인 살인사건의 뒤에 서광옥으로 대표되는 요부를 위치시킨다.

이렇듯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등 영호는 탐정으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발휘하지만 살인마 서광옥과 대면하게 되면서 또 다른 감정의 시련을 겪게 된다.

“맘에 조금도 꺼리끼잖애?”

“그런 말은 나더러 묻지 말아요. 내가 사람의 맘을 내버린 지가 벌써 이십년이 가까워 오는데 지금 물어서 무얼 하겠소? 염마(艷魔)야 염마……”

“그럼 대설이도 죽였구려?”

“아니 제절로 죽었어 …… 그제 죽기 때문에 되려 일이 더디어진걸……”  
영호는 더 말하고 싶지가 아니하였다.

죽히 인간이라고 여길 대상이 못되는 인간이다. 굵고 고운 인간의 털을 쓴 그야말로 염마다.

그 염마에게 그런 줄 변연히 알면서도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힘으로 인하여 야릇한 매력을 느끼는 영호 자기 자신이 몸서리가 나게 무서웠다.

“왜? 무서워? 호호, 그러나 내가 당신은 잡아먹잖을 테니 염려 말어요…… 그리고 일 끝나거든 나하고 같이 상해 갑시다. 응,”

광옥은 영호의 볼때기를 사뭇 한점 베어먹고 싶은 듯이 꼭 꼬집는다.(538면)

서광옥은 스스로를 ‘염마(艷魔)’라고 자처하고 탐정을 유혹하리만큼 도발적인 악녀이다. 그녀는 전 남편인 이재석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자이자 애인인 유대설을 토막 살인하고 얼굴에 초산을 끼얹어 물크러뜨림으로써 경찰과 탐정의 수사를 휘방놓고 남동생을 범죄에 가담시킬 정도로 악독하다. 그러나 영호는 요부 서광옥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으로 매혹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서광옥의 유혹이 노골화되면서 영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해, 광옥을 납치해 취조하는 지하실 장면에서 흔들림은 최고조에 이른다. 그는 서광옥에게 감옥으로 가는 대신 상해로 도망가라고 제안하며, 그녀가 그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자살을 택하겠다고 하자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전재산이라도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는 “이 괴로워하는 자기의 마음이 불쾌하고 미웠으나 이성(理性)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575면)라고 고백한다. 이렇듯 센터멘탈한 감정의 출현은 그를 위기에 빠뜨린다. 음독하며 죽어가던 서광옥이 충을 쓰지만 영호는 마치 그녀와 함께 죽기를 원하듯 충알을 피하지 않는다. 서광옥이 죽은 이후 영호는 “죄……사람을 죽였더든가 도적질을 하였다거나 그 밖에 도덕적으로 죄를 졌다거나 하는 그러한 더 무겁고 큰 해물을 쓰는 듯”한 괴로움, 즉 자책감에 시달린다.

이렇듯 독부의 죽음 앞에선 영호의 반응은 죽어가는 자에 대한 동정심으로

간주할 수 없는데, 그는 억울한 희생자의 주검 앞에서도 초연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광옥의 죽음에 대한 영호의 괴로움은 아름다운 여자가 불러일으키는 매혹의 감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엄마』라는 소설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서광옥은 상대방의 이성과 인격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아름다움, 즉 팜므 파탈(femme fatale, 요부)이다. 그녀는 아름다운 육체로 영호의 시선을 사로잡고 급기야 이성을 마비시킴으로써 주체의 지위를 위협한다. 서광옥의 육체는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의 주체와 객체의 권력관계를 역전시킨다. 유혹하는 자의 치명적 매력은 시각을 통해 부여받는 대상의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침해한다. “원체 미인” “눈이 부시게 양장한 미인”(435면), 사십이 넘었지만 스물대여섯밖에 되어보이지 않는 얼굴, “서울 여학생 가운데 제일색”(521면) “고우면서도 칼날같이 매서운 그의 표정과 아울러 찬바람이 도는 듯”한 난숙한 몸 등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각적인 스펙타클 혹은 황홀한 응시의 시선 속에서 묘사된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움의 권력의 지닌 치명적 위험 역시 암시된다. “두 개의 머리털을 현미경으로 검사해본 결과 그것은 삼십으로부터 사십세까지의 아직 정력이 왕성한 여자의 것”(240면), “상상한 바와 같이 오염하고도 독부형으로 되었다”(428면) 등 이십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서 느껴지는 기묘한 두려움 등이 묘사된다. 시각적 황홀경을 불러일으키는 미녀는 시선의 주인권력을 소유한 남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영호의 내면에는 그녀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이 분열적으로 거주한다.

이렇듯 영호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탐정활동을 훼방하는 감정의 위협은 여성과 여성의 육체에서 비롯된다. 이는 감정과 여성 그리고 육체를 분리시켜 사유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근대적 주체의 기획에서 감성은 종종 방해물로 간주된다. 감정은 이성을 교란시키는 훼방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채로 남아있으려면,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고 여겨진다. 근대 주체는 이성과 감정을 철저히 분리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에 대해서도 모종의 신화를 발명해왔다. ‘인간의 사유는 개인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사유과정은 개인들의 행위의 동기, 행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믿음은 인간이 군중 속에 매몰될 때 개성 혹은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여겨져 온 것이다.’ 특히 근대철학의 시조인 데카르트는 이성과 감정을 철저히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감정은 이성적 사고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다는 가정을 과학화했다.

이렇듯 감정이 이성의 적 혹은 파괴자인 까닭은 감정은 육체의 노예이고, 육체는 이성의 외부에 있는 천한 물질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J.M 바바렛에 따르면 “그(데카르트-인용자)가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켜 이성을 정신에 그리고 감정을 육체에 할당한 것도 바로 이같은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이 코키토의 또 다른 측면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고와 이성을 타락시키는 감정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도 가지지 못한다. 만약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면, 내가 느낄 경우 나는 파멸한다. 이성을 타락시키는 감정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다.”<sup>18)</sup> 이는 여성이 이성적 주체 기획의 서사에서 배제되고 추방될 수 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감정의 젠더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감정이고, 감정이 여성 젠더의 자질인 까닭은 여성이 육체로 규정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감정은 정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생리, 출산, 수유 등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들은 여성을 육체에 매인 숙명의 존재로 규정하게 한다. 과학은 인종, 계급, 성별의 차이와 상관없이 객관적 진리를 찾는 보편의 학문으로 간주되기 쉽지만 기실 남성과 여성을 이분화하고<sup>19)</sup> 그러한 바탕 위에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 남성을 이성, 여성을 감성에 결부시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탐정이 이성적·과학적 자기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감금되거나 추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듯 이학회는 영호의 탐정활동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서광옥은 죽음에 이른다.

#### 4. 모더니티의 공포와 이성의 영웅

탐정소설은 18세기 후반 서양의 고딕소설(Gothic novel)의 영향을 받는데서 알 수 있듯이 소름끼치는 공포와 신비 그리고 괴기의 효과를 노린다.<sup>20)</sup> 고딕소설의 유산은 탐정소설에서 비밀통로와 지하감방, 유령이 튀어나올 듯한

18) J.M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옮김, 『감정의 거시사회학』, 일신사, 2007, 68면.

19) 이블린 폭스 켈러의 글을 위와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블린 폭스 켈러, 민경숙·이현주 역, 『과학과 젠더』, 동문선, 1996.

20) 정규웅, 『추리소설의 세계』, 살림, 2007, 29면.

대저택 등의 형태로 남아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런데 탐정소설이 다루는 공포는 인간의 기본 정서, 즉 원초적인 감정은 아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에 따르면 인간이나 동물은 모두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과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이라는 기본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인간만이 구체적인 위협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2차원적 공포, 즉 세상은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은 그러한 위협을 마주했을 때 방어할 수 없으리라는 불안과 취약함의 감각에 시달린다. 2차적 공포의 감정은 모더니티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모더니티는 삶을 공포와 더불어 살만하게 만들기 위한 문명의 고안물이기에는 의미심장한 역설이다. ‘모더니티는 공포를 낳는 위협은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만 하면 사회질서를 뒤흔들 수 없다며 공포에 침묵을 명령하기 때문이다. 모더니티는 인간이 신 또는 그밖의 초월적인 정신과 자연과의 유대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 스스로 인간의 삶을 통제하기로 한 시대이다. 그러나 모더니티의 역설은 공포는 마치 영원히 떼내어 버릴 수 없는 숙환처럼 그것이 처치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근대 사회는 기술을 통해 자연의 변덕스러움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미증유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절대적 기아의 공포로부터 벗어났지만, 새로운 공포들을 배양하는 위험사회이기도 하다. 최고조에 이른 기술문명의 이면에 숨어있는 불확정성과 통제불능성은 인간에게 다시금 공포를 준다. 그래서 바우만은 근대의 공포를 물의 속성에 비유해 “유동하는 공포”라고 언명한다. 이로 인해 근대인의 인생은 끊임없는 수색정찰의 과정 그리고 압박한 위협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대책을 시도하는 과정이 된다.’<sup>21)</sup>

앞서도 말했듯이 여자 찾기를 계기로 영호는 혼자만의 놀이의 장소였던 과학 실험실을 벗어나 근대적 도시 경성으로 진입해 분석과 해부의 실제 대상을 만나면서 근대적 주체성을 획득해간다. 경성이라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자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자를 찾는 과정은 곧 모더니티의 장소인 경성을 탐험하는 모험이다. 『염마(艶魔)』에서 모더니티는 김내성의 『魔人』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으로 표상된다. 『魔人』에서 명탐정 유불란은 도시를 공포에 빠뜨린 연쇄살인의 범인에 관한 생각에

21) 모더니티와 공포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했다.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9, 11-23면.

가득찬 채 경성의 거리에서 “때는 오후 여덟시 전후……삼청동공원 일대에는 짙은 어둠의 장막이 흐르고 멀리 바라다보이는 시가지에는 오색의 「일류미네-순」이 굽주린 요부의 눈동자처럼 「윙크」를 한다.”(166면), “거리에는 짙은 밤안개가 흐르듯이 나리고 오색의 「네온·라이트」가 마도(魔道)의 님프처럼 오고가는 사람에게 「윙크」를 한다.”(207면)<sup>22)</sup>라며 비장한 대결을 앞둔양 읊조린다. 이는 모더니티가 유혹하는 요부로 표상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모더니티는 여성, 특히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악녀나 요부로 은유화된다. 『염마(艶魔)』는 식민지 경성의 신문, 우편, 전신 등 근대 미디어들의 발달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보여주는데, 살인사건은 신문에 연일 보도됨으로써 미디어 공동체인 경성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이렇듯 도시를 공포를 몰아넣는 위험한 존재는 아름다운 외양 뒤에 위험한 욕망을 숨긴 신여성이다.

모더니티가 종종 여성으로 비유되는 것은 그다지 낮은 현상은 아니다.<sup>23)</sup> 모더니티의 상징인 도시는 여성들을 공적 거리로 끌어냄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뒤섞이는 혼성적 공간을 이룬다.<sup>24)</sup> 화려한 치장을 한 여성들의 등장은 도시를 스펙타클한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는 여성 젠더로 표상되곤 한다. 특히, 30년대 경성의 문화정치학 속에서 신여성은 모던의 상징적 표상이다. 그리고 이렇듯 신여성이 모던 걸로 호명하거나 모던의 표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근대 도시의 위험을 암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여주 출신의 서광옥은 “서울여학생 가운데 제일색이라는 영광”(521면)이 따라붙을 뿐 아니라 “눈이 부시게 양장한 미인”(435면)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매혹적인 외모의 신여성이다. 그러나 “요염하고도 독부형”의 생김새, 문란에 가까우리만큼의 남상 편력과 동성애 전력, 사치와 낭비벽 등 그녀를 수식하는 말들이 암시하듯이 서광옥은 퇴폐와 허영심에 빠진 허화부박자로서 ‘모던걸’로 불린다. 20년대 중반부터 신여성이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는 자존심 강하고 독립적인 현대 여성이 아니라, 정조 관념이 없고 사치스러운 탕녀로 간주되면서 ‘모던 걸로’로 지칭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비하적 호칭이다. 이재석은 “여학생들의 거동과

22) 김내성, 『魔人』, 조광사, 1939.

23) 김소영, 『시네마, 테크노 문화의 푸른 꽃』, 열화당, 1996, 38면.

24) 모더니티와 여성의 관련성을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벤 싱어, 이위정 역,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몸매씨를 칭찬하였고, 또 우리 조선 가정도 개량을 하자면 학식 있는 주부가 들어와야 한다는”(524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서광옥과 결혼하지만 서광옥은 독부이자 악녀로 드러나는데, 이는 여학생의 호명이 신여성에서 모던 걸로 변이 혹은 추락하는 시대적 변이과정이 압축되어 담겨져 있다.<sup>25)</sup>

이렇듯 애초 구시대의 여성과 달리 독립적인 새세대의 여성으로서 조선을 근대적으로 개량해 줄 계몽주체로 받아들여졌던 ‘신’여성이 점차로 사치스럽고 정조관념이 없는 방탕녀를 함의하는 ‘모던 걸’로 불리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김수진은 그 이유를 “신문물은 식민지인들에게 매혹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부정했던 힘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찾는다. 당대 신여성이나 신문기사들이 모던 걸을 다루는 방식은 이중적인데, 한편으로는 서구의 근대적 가치는 내버린 채 허영과 퇴폐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성의 극소수가 구형하고 있을 유행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형식의 기사가 많다는 것이다. 서구적 근대에 대한 동경과 그러한 욕망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양가적 태도가 분열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것이다.<sup>26)</sup> 이는 영호가 왜 악녀 서광옥의 퇴폐성에 매혹당하면서도 그녀를 처벌하는지 그 이유를 엿보게 한다. 『엄마(艷魔)』는 근대적 기술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본주의의 도시를 건설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의 소비주의적 문화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식민지 근대적 주체들의 이념을 담아내고 있다. 즉, 이들은 서구의 물질과 정신적 이념을 받아들여,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와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광옥은 식민지 모더니티에 대한 남성의 분열된 의식이 투사된 존재이다.

탐정소설은 우리들의 일상에 미만한 공포들을 조사·발굴해 이를 퇴치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성적·과학적 주체의 욕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르이다. 그것은 모더니티가 야기하는 공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욕망에서 생겨진다. 앞서도 말했듯이 모더니티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브 뢰테르는 “추리소설은 아마 중요한 사회적·문화적 변화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생겨났을 것이

25) 신여성과 모던걸의 호명에 담긴 의미와 의미의 사회적 변이과정에 대해서는 김수진의 논문을 참고할 것.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260-272면.

26) 김수진, 앞의 논문, 273면.

다. 사회는 산업화되어가고, 산업화된 도시와 도시 근교는 도처에 깔린 빈곤과 범죄 행위에 대한 매우 강한 우려를 지니며 한창 팽창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경찰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들의 사건 수사 방식을 새로이 하는 한편 이 상황에서의 범죄 사건들은 동시에 대중들에게 보다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sup>27)</sup>라고 함으로써 재산의 강탈과 관련된 범죄가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이 모더니티의 공포 중의 하나임을 암시한다. 에른스트 만델은 탐정소설은 도시 안에 도사린 범죄와 그것 사유재산에 대한 옹호하는, 부르주아 장르<sup>28)</sup>라고 갈파한다. 『염마(艶魔)』는 서울구경을 위해 상경했지만 “길에 나갔다가 집을 잃어버릴까 바” 하숙집에만 틀어박힌 시골뜨기 손님을 통해 경성이라는 도시가 주는 공포를 표현한다. 특히 모던 걸은 모더니티가 불러일으키는 알 수 없는 공포가 투사되는 집단적 표적이다. 모던 걸을 점잖은 부자의 사유재산을 노리는 한편으로 경성을 공포에 몰아넣는 범죄자로 제시함으로써 뺨방자를 처벌함으로써 모더니티의 진보기획을 추진하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다. 『魔人』도 그렇지만 『염마(艶魔)』는 이야기의 무대 위에 실제라기보다 상상 속의 근대 도시 경성을 펼쳐보인다. 서양식 대저택, 자동차 추격전, 백화점, 미디어의 발달 등 소설의 배경인 경성을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이미지로 전시함으로써 서구적 대도시에 버금가는 화려한 도시 경성에 대한 소망 혹은 욕망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염마(艶魔)』는 모더니티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는 한편으로 모더니티에서 공포를 몰아내는 영웅적 탐정 혹은 초월적 주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근대적 개인주의의 이념은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서구의 퇴폐적 문화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한 영호의 전략은 늘 차가운 이성의 자아, 즉 냉정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탐정은 이러한 혼란한 근대 속에서 공포와 싸우며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핵심은 유동하는 공포를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는 과학을 숭배한다.

우연……

27) 이브 피테르, 김경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 22면.

28) 에른스트 만델 지음, 이동연 역, 『즐거운 살인』, 이후, 2001.

이 우연이란 것은 참 신비 망측한 물건(?)이다.

가령 사람을 만들어내기는 하느님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은 이 이우연이란 놈이다.

그러니까 우연은 사람에게는 하느님보다 더 힘이 큰 것이라고도 우겨 볼 수가 있기는 하다.

물론 한편에서는 우연을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미상불 그렇기도 하다. 세상에 정말 우연은 없다. 다 필연이다.

다만 사람이 멍청해서(사람이여 용서하라) 필연을 못 보고 있다가 결과만 가지고 그놈을 우연이라고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357면)

우연을 그것이 필연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로 간주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영호는 숙명론이나 신비주의를 혐오하는 과학적 세계관의 소유자이다.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부르주아 독신남인데다 방대한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기술 등을 소유한 영호는 모더니티의 초월적 주체이다.<sup>29)</sup> 특히 그가 손수 설계해 지었다는 석조 이층 양옥에는 우연을 필연으로 밝혀줄 혹은 공포의 베일을 벗길 과학적 실험도구들이 가득하다. 영호는 강도(強度)의 확대경, 화학실험대와 전기실험대, 실험을 위한 온갖 약품 등이 갖추어진 저택에서 태연자약하게 잘린 손가락을 살핀 후 지문을 뜨고 석고 모형을 떠놓으며, ‘독와사 펌프’와 크로로포름을 이용해 범인을 위기에 빠뜨린다. 다른 한편으로 영호는 식민지 경성의 모더니티 속에서 등장한 부르주아 개인의 초상을 응축시켜 놓은 ‘댄디’이다. 댄디의 특징 중 하나는 산책자로서의 면모이다. 발터 벤야민은 산책자를 “나는 스쳐 지나가며 엿듣게 된 말 한 마디를 단서로 하나의 대화를, 하나의 인생을 재구성할 수 있다. 역양 하나만으로도 이제 막 밀치며 옆얼굴을 잠깐 본 사람에게 (7가지) 대죄 중의 하나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에 충분하다.”<sup>30)</sup>라고 말함으로써 산책자의 탐정적 속성을 암시한 바 있다. 이 작

29) “과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 대도시의 수수께끼 같은 측면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 특정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아도 되는 귀족 출신의 부유한 독신자, 인간 대부분과 그들의 ‘비이성적인’ 감정의 흐름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 객관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초연한 태도. 19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계층인 ‘부르주아’처럼, 탐정 역시 전례없는 존재다”(김용언, 『군중 속의 개인-탐정, 범죄 소설, 모더니티』, 연세대 대학원 비교문학협동과정, 2007, 34면.

30) 김용언의 논문에서 재인용. 벤야민, 『M-산책자』, 『아케이드 프로젝트』,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5, 992-993면.

품은 낙원동, 교동을 뒤지고, 인사동, 관훈동 일대를 돌며 종로 이남을 뒤지는 식으로 경성의 공간지리를 소설의 무대로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으로 자동차나 인력거를 이용한 추격전, 미행과 잠복 등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탐정활동을 펼쳐보인다. 영호는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경성에 대해 살살이 알고 있다. 또한 백화점의 쇼윈도우나 거리에서 흔히 벌어지는 다툼에 사로잡히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성의 거리를 탐사한다. 그는 대도시의 유혹에 정복당하기보다 뛰어난 변장술과 의성학으로 자기를 감춘 채 감금된 이학회를 구출한다. 이렇듯 감쪽같은 위장술은 표면과 이면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탐정의 자질이자, 도시라는 미로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술 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략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영호는 사소한 단서들을 모으고 논리적 추론을 거친 끝에 범인의 실체에 접근해가는 수집가이다. 세밀한 관찰과 파편화된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 사건을 종합하는 것은 탐정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영호는 유대설의 하숙집의 커튼의 한 귀가 뜯겨진 것을 눈여겨보고, 누군가가 유대설을 피어들이기 위해 문간이 같은 집을 구하고 외양을 비슷하게 꾸미려했으리라 추정하고 커튼 판매점을 뒤져 커튼의 구매자가 이학회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또한 이학회네의 트렁크에서 발견한 사진 속 신여성의 존재를 추적해 그녀가 범죄사건에 개입되어 있음을 밝혀낸다. 이렇듯 실험과 냉정한 관찰 그리고 과학적 추리는 모더니티의 공포와 맞서는 탐정의 무기이다.

## 5. 속류화된 교양의 징후

탐정소설을 읽는 쾌락은 이성적으로 우월한 탐정이 비명과 살육의 현장인 도시에서 과학적 추론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어 혼돈에 빠진 사회를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탐정은 어둠과 굶주림을 견뎌내는 한편으로 칼과 방패에 의지해 무시무시한 괴물과 적들로 둘러싸인 숲을 통과해내는 중세 영웅의 근대적 현신이다. 탐정은 모더니티가 불러 일으키는 공포와 대적이다.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기실 도시는 위협으로 가득찬 곳이어서, 음습한 골목이나 잠재적 범죄집단인 하층민 등 악의 가능성이 풍부하다. 탐정은 냉정하고도 치밀하면서도 탁월한 지적능력을 바탕으로 모더니티를 탐사하는 한편

으로 모더니티가 불러일으키는 공포와 싸운다. 탐정소설은 이성적 주체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을 발굴 조사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이야기이다.

본고는 이러한 영웅주의적 주체의 탄생이 모더니티, 즉 도시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매혹 장악하려는 욕망과 공포의 이중주 속에서 전개된다고 보고, 탐정의 추리과정을 공포를 추방하려는 과정이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숙한 남성주체성을 확립하는 속류화된 교양의 길이라고 보았다. 냉정, 비정, 지성, 관찰과 실험, 추론과 종합, 해부와 분석은 남성화된 근대 과학의 증거이다. 탐정소설은 논리적 추리력을 갖고 닦아 섬세하게 조율된 자신의 정신세계 속으로 두려움이나 연약함 혹은 뜨거운 감정의 침투를 봉쇄함으로써 영웅, 즉 우월한 개인이 되는 비정한 여정을 담는다. 탐정은 다방면의 과학적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력, 추리와 종합의 지적 능력을 무기삼아 악으로 가득한 모더니티의 숲을 헤쳐가야 하는 로망스의 주인공인 것이다. 따라서 탐정은 근대 도시의 영웅이 된다. 조성면이 말했듯이 “추리소설은 불가해한 범 죄나 미궁에 빠진 사건이 이성적 영웅(탐정, 경찰, 첩보원)에 의해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그린 장르문학으로 이성과 합리의 힘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인류의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근대 이성중심주의의 철학과 계몽주의를 내면화(속류화)한 지능형 오락소설”<sup>31)</sup>이다.

30년대 탐정소설은 이념을 잃어버린 지식인들의 속류화된 교양 형성의 장이다. 모더니티는 개인의 진보를 가져왔다. 독립적 개인의 주체성은 출생과 관련된 특정지위나 종교, 지역사회나 정해진 땅에 구속되는 봉건적 의무와 구속, 친족이나 그와 비슷한 유대로 미리 결정되지 않는다. 근대에 들어서 개인은 사회적, 지리적, 실제적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운명의 예측가능성, 자발적인 인생운항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탐정은 근대적 개인주의의 속류화된 표상으로서 타자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주체가 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타자를 발명하고 억누른다. 탐정소설은 위기에 빠진 남성주체성을 봉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글은 근대적 주체되기에 대한 통속화된 기획이 궁극적으로 이성과 감성을 이분화하고 이를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은유함으로써 젠더정치를 끌어들이고 있음을 밝혔다. 『엄마(艷魔)』는 『마인』과 마찬가지로

31) 조성면, 「도전으로서의 추리소설: 한국 추리소설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한비평, 김전일과 프로도를 만나다』, 일송미디어, 2006, 32면.

가지로 살인사건 혹은 도시의 범죄를 여성과 결부시킨다. 탐정들의 사건 해결의 과정에 개입해 휘방을 놓는 것도 여성이다. 그래서 탐정소설은 근대적 자아의 기획을 위협하는 악녀들을 처벌하거나 순치시키는 과정, 즉 로맨스 혹은 유혹을 중심으로 한 성별화된 내러티브가 구축되는 현장이다. 『마인』은 진과 선의 거점으로서 남성적 과학의 반대편에 주관적이고 타락하기 쉬운 관능성과 결부된 여성적 예술을 위치시키고 탐정 유불란의 과학의 승리를 선언한다. 물론 유불란은 잘못된 추리로 범인을 놓치는 등 실수를 저지르고 결국 탐정을 폐업하지만, 그 실패는 그가 예술-여성에 대해 느낀 매혹에서 비롯되기에, 이 실패는 예술로 상징된 여성과 감정에 대한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과학의 패배가 아니라 과학의 승리라고 바꾸어 불러야 할 것이다. 『마인』이나 『염마(艶魔)』는 하와이에 가서 부를 축적해 오거나 상해로 유흥을 즐기고, 만주개발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서양의 탐정과 우편을 주고받는 등 트랜스 내셔널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에 대한 옹호의 이면에 근대적 자본주의와 제국을 향한 동경이 내재해 있음을 암시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김내성, 「탐정소설의 본질적 요건-『사상의 장미』의 서문」, 1936.  
김내성, 『마인(魔人)』(조선일보, 1939.2.14-10.11), 조광사, 1939.  
김영석, 「포오와 탐정문학」, 『연희』, 8호, 1931.12.  
안희남, 「탐정소설론」, 『조선일보』, 1937.7.13-16.  
이종명, 「탐정소설론」, 『중외일보』, 1928.6.5-9.  
송인정, 「탐정소설 소고」, 『신동아』, 1933.4.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艷魔)』(채만식전집 1), 창작사, 1987

### 2. 논저

- 김소영, 『시네마, 테크노 문화의 푸른 꽃』, 열화당, 1996.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사회학과박사학위논문, 2005.  
김영민(「채만식의 새 작품 <艷魔>론」, 『현대문학』, 6월호, 1987.  
김용언, 「군중 속의 개인-탐정, 범죄 소설, 모더니티」, 연세대 대학원 비교문학협동과정, 2007.  
대중문학연구회 편,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오혜진, 「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중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조성면 편저, 『한국근대대중소설 비평론』, 태학사, 1997.  
조성면,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조성면, 「도전으로서의 추리소설: 한국 추리소설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한비광, 김전일과 프로도를 만나다』, 일송미디어, 2006.  
정규웅, 『추리소설의 세계』, 살림, 2007.  
정종현, 「사실, 과학 그리고 문학의 신생」,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8.6.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 역사, 2003.  
천정환, 「계몽주의 문학과 '재미'의 근대화」, 『역사비평』, 66호, 2004.  
최애순, 「한국적 탐정소서로서 <염마>의 가능성과 의의」, 『현대소설연구』 37, 한국소설학회, 2008.1.

- 최애순, 「이론과 창작의 조응, 탐정소설가 김내성의 갈등-본격 장편 탐정소설 『마인』이 형성되기 까지」, 『김내성 탄생 100주년 기념: 김내성 소설의 추리, 연애, 모험, 그리고 이상(理想)의 세계』, 대중서사학회 2009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9.4.11.
- 벤 싱어, 이위정 역,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 에른스트 만델, 이동연 역, 『즐거운 살인』, 이후, 2001.
- 이브 뢰테르, 김경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
- 이블린 폭스 켈러, 민경숙·이현주 역, 『과학과 젠더』, 동문선, 1996.
-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9.
- J.M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옮김, 『감정의 거시사회학』, 일신사, 2007.

## 【국문초록】

탐정소설을 읽는 쾌락은 이성적으로 우월한 탐정이 비명과 살육의 현장인 도시에서 과학적 추론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 혼돈에 빠진 사회를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는데서 비롯된다. 탐정은 무시무시한 괴물과 적들로 둘러싸인 숲을 통과해내는 중세 영웅의 근대적 현신이다. 탐정은 모더니티가 불러 일으키는 공포와 대적한다.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기실 도시는 위협으로 가득찬 곳이어서, 범죄자들과나 음습한 골목, 잠재적 범죄집단인 하층민 등 악의 가능성이 풍부하다. 탐정은 냉정하고도 치밀하면서도 탁월한 지적능력을 바탕으로 모더니티를 탐사하는 한편으로 모더니티가 불러일으키는 공포와 싸운다. 탐정소설은 이성적 주체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을 발굴 조사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이야기이다.

이 글은 탐정소설을 모더니티에 대한 매혹과 공포의 분열된 감정 속에서 남성주체성을 확립하는 속류화된 교양소설이라는 점을 밝힌다. 냉정, 비정함, 지성, 관찰과 실험, 추론과 종합, 해부와 분석은 남성화된 근대 과학의 증거이다. 탐정소설은 논리적 추리력을 갈고 닦아 섬세하게 조율된 자신의 정신세계 속으로 두려움이나 연약함 혹은 뜨거운 감정이 침투하는 것을 봉쇄함으로써 영웅, 즉 우월한 개인이 되는 비정한 여정을 담는다. 채만식의 『염마(艶魔)』는 탐정소설이 과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주체 형성에 대한 열렬한 동경을 보여주는 것이며, 퇴폐적 개인주의를 넘어서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적 주체 기획의 서사에서 감성은 방해물로 간주된다. 이성적인 채로 남아있으려면,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이성적 주체 기획의 서사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추방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감정의 쟁점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감정인 까닭은 여성이 육체로 규정되어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핵심어 : 탐정(추리)소설, 근대적 주체, 과학, 이성과 감정, 여성, 육체, 공포의 감정, 모더니티

【Abstracts】

## A study of Romance on Modern Reason that explored of Modernity

— on Yeomma(艶魔) written by Chae man sig.

Kim, Eun-ha

The pleasure in reading detective fiction is beginning from that a rationally superior detective revives the society in chaos to the normal society finding a criminal through scientific inference at the city where is the field of screams and slaughter. The detective is a modern wise retainer who can pass by the forest surrounded with enemies. The detective competes against to terror that is begun by modernity. In fact, the city is full of dangerous even if it is seen attractively, so then it is full of the possibility of evil that are criminals or alley in being dark and dump and the people of the lower classes who are potential crime. The detective explores modernity based on excellent intellectual ability that is not only coolness but also precise, and fights against to terror that is begun by modernity. Detective fiction is the story that overcomes it as a rational subject finds and investigates subjects what incurring terror.

This story is presented that detective fiction is a bildungsroman been the common crowd in which establishes male identity in emotion divided with fascination and terror to modernity. It is the evidence of modern science masculinized that is coolness, cruel, intellect, observation and experiment,

inference and colligation, dissection and analysis. Detective fiction is comprehended a cruel journey that is to be a hero, namely a superior individual with blocking up to be pass into his spirit world which is balanced delicately due to grind logical reasoning power by terror, frailty or hot feelings. Yeomma(艶魔) written by Chae man sig presents passionate aspiration that detective fiction is to make a rational and reasonable subject based on scientific literacy, and try to over decadent individualism. However, emotion is considered as an obstacle in a prologue of planing such a rational subject. If it will be remained the rational state, it regards to have to control emotion. It suggests that female has to be excluded and exiled in a prologue of planning a rational subject. It is because a gender of emotion is female. The reason is related with that female has been prescribed as the body why female is emotion.

Keywords : detective fiction, a modern subject, science, reason and emotion, female, the body, feeling of terror, modernity.

이 논문은 2009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